

이순신. 그는 지금 21세기에서 ‘성웅으로’ 추대 받으며 우리의 영원하고도 대표적인 영웅이다. 그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바로 이 난중일기 속에 있다. 물론 그는 왜군과 23번 싸워서 23번 모두 이긴 용맹하고 하늘이 내려준 몇 안 되는 장군이었지만 지금의 이순신을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아마 다른 장수들에게는 없었던 겸손을 갖추고 있었고 두려움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왜적에게 짓밟힌 우리나라의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당당하게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써서 더 나은 미래까지 창조하였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왜군을 겨누는 칼을 갈았다. 또한 그는 무리에 휩쓸리는 오리가 되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는 자신의 신념만을 고집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는 이런 장군이기도 하였다. 앞에 가시덤불이 있어도 자신의 조국, 조선을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설령 자신이 상처를 입어 다치더라도 말이다. 아니, 오히려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였다. 그는 마치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하였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몇 명의 장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장수들이 그의 계획을 믿지 않고 반대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는 1%의 가능성만을 보며 승리를 이끌어 나갔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 처지인 조선에 기름을 부어 다시 활활 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늘이 주어진 능력과 지혜, 용맹함까지 갖추었지만 그의 인생 중 단 한 번도 자만해지거나 우쭐해지지 않았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안았다. 정작 자기 자신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난중일기에서는 이렇게 이순신이 얼마나 훌륭한 장수였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마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했을 때였다. 전쟁은 이별과도 같다. 일어나면 모든 것을 나 자신한테서 빼앗아버린다. ‘지옥과도 같았던 전쟁, 조선에게는 크나큰 재앙이었다.’라는 부분이 그 참혹함을 보여준다. 임금의 무능함과 간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져야 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비극과도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라를 위해 죽은 선조들이 흘린 눈물과 피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아픔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를 향해 용감하게 발자국을 내딛어야 한다. 저 하늘이 푸르른 날까지, 이순신 장군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